

# '광산업의 날' 축제에 오세요

■유공업체  
**금상-피피아이**  
**은상-에프엔엔**  
**동상-오리온광통신**  
**이노셈코리아**

광주 광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한 '2007년 광산업의 날' 행사가 오는 13일 광주시 첨단단지 체육공원과 쌍암공원 운동장에서 열린다.  
 광주일보사와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가 공

## 내일 광주 첨단 쌍암공원서 한마당 잔치

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1부 체육대회, 2부 축제 한마당으로 나눠 개최되며 광주지역 광관련업체와 임직원, 유관기관·단체 1천여명이 참여한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1부 체육대회에서는 750여명의 광관련업체와 임직원들이 친선 축구경기,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또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의 광산업 유관기관 투어와 광산업 제품전시장 방문 등이 부대행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2부 축제 한마당은 오후 6시30분부터 쌍암공원 운동장에서 막이 오른다. 광산업발전 유공업체 표창,

초청가수 공연 및 임직원 장기자랑 등이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초청가수로는 '곤드레 만드레'의 박현빈씨 등이 대거 출연, 무대의 흥을 돋운다.  
 이날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하는 광산업 유공업체는 ▲금상=피피아이(대표 김진봉) ▲은상=에프엔엔(대표 주양진) ▲동상=오리온광통신(대표 정승현), 이노셈코리아(대표 최운용) 등 4개 업체다.  
 피피아이는 2003년 광과워 분배기 칩을 개발, 현재 미주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일본 관련사와도 사업 제휴 등을 통해 15억원의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2006

년 매출은 41억원.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인 에프엔엔은 FTTH(백내가입자망) 광케이블 공기업 포설장치, 자동차용 고신뢰성 하이브리드 광전케이블 개발에 힘쓰고 있다. 매출액은 27억원.  
 오리온광통신은 광섬유 커넥터용 페룰 홀더, 액체온도 측정장치, 다중-단일모드 광섬유변환기 등을 개발해 연간 50% 이상의 매출성장을 가져왔다. 매출액은 35억원.  
 1999년 설립된 이노셈코리아는 LED 조명 및 컬러조명 제어시스템의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해 광주 LED밸리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무안·목포 등에 경관조명공사를 실시해 전력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매출액은 15억원.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아시아나 기내식 맛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이 11일 유명 외식업체와 제휴를 통해 개발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리쿠치니'와 롯데호텔의 정통 중식당 '도림', 덤섬 프랜차이즈인 '딤타이핑' 등과 제휴를 통해 각 업체들의 대표 메뉴를 기내식으로 제공한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상장사 시총 6조 3,360억

주가 상승 힘입어 지난해 말보다 76% ↑  
 올 들어 주가 상승으로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25개 상장법인(28종목)의 시가총액은 6조3천360억원으로 지난해 말(3조5천980억원)보다 76.1% 증가했다. 이는 전국 상장법인 시가총액 증가율(39.0%)의 2배 가량으로, 금호산업 등 대다수 지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들어 지역 상장사 28개 종목 가운데 22개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다.  
 시가총액 증가율이 큰 상위 5종목은 화인케미칼(735.8%), DSR제강(230.3%), 금호종금(207.0%), 와이엔텍(189.1%), 성원파이프(147.5%) 순이었다. 시가총액 증감액에선 금호산업(1조3천629억원), 조선내화(2천640억원), 화인케미칼(2천465억원) 순으로 많이 늘어난 반면 엠엔에스(372억원), 셀린(201억원), 파루(27억원)가 감소 상위 3개사를 차지했다.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은 금호산업(2조3천764억원), 화인타이어(1조1천270억원), 조선내화(4천720억원), 금호산업 우선주(2천808억원), 화인케미칼(2천800억원) 등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전남 단일경제권 형성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필요"

〈협치(協治)체제〉  
**'지역 발전 전략' 세미나**  
 광주와 전남이 단일 경제권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조정 및 협력기능을 하는 광역 지역경제 거버넌스(협치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광채기(행정학과)·나주몽(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오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열린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역경제발전 전략'이란 학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차선책으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광주와 전남경제를 성장·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광역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단기적으로는 '광주·전남권 경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관이 참여하는 '광주·전남권 경제개발청'을 설치, 광역경

# 4년째 적자 韓銀, 복지비 '핑핑'

올 8월까지 22억7천만원 지출  
 한국은행 직원들이 여가 활동 등에 사용하는 복리후생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누적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처지에 놓인 한은이 직원 복지 향상에만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올들어 8월까지 지출한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22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해 지출액 12억4천400만원보다 10억2천600만원(82.5%)이 급증한 수준이다.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직원이 알아서 자기 계좌 발이나 문화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다. 한은의 1인당 선택적 복리후생비 한도는 2004년 20만원에서 2005년 40만원, 작년 60만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이 2004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역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대폭 인상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 기업 '서울마린' 광주 온다

첨단산단에 420억 투자  
 광주시와 투자양해각서  
 태양광 발전업체의 선도기업인 서울마린(주)이 광주에 진출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서울마린(주) 최기혁 대표이사는 11일 광주시청에서 태양광발전소 및 발전설비제조공장 건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이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에 LED집적화단지(1만6천500㎡)에 420억원을 투입, 태양광 발전모듈 및 인버터 생산공장을 착공해 2009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순천과 고흥 등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3기를 건설, 운영중에 있는 태양광 발전 및 설비 건설 전문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도 37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마린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와 지역내 연구지원 시설 등의 인프라 제공, 투자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강제 수거 결정 부적합 수입식품 상당수 국민 식탁에 올랐다

상반기 회수를 고작 12.7%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강제수거 결정이 내려진 부적합 수입식품의 회수율이 극히 떨어져 상당 부분이 국민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회수대상식품 중 수입식품 강제회수 처리현황(2005년~2007년 상반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회수명령이 떨어진 수입식품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 회수된 것을 불량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에는 수입량 69만4천425kg 중 24% (17만3천2kg), 2006년에는 50만7천591kg중에서 7.7%(3만9천392kg)에 불과했다.  
 올 들어서는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2007년 상반기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진 수입식품 27만6천713kg 중에서 실제 회수처리된 물량은 12.7%(3만5천350kg)에 그쳤다.  
 노 의원은 "이렇게 회수되지 못한 부적합 수입식품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판매돼 국민의 식탁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식품당국의 수입식품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예산을 크게 삭감한 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년복리정기예금 연수익률 5.85% [확정금리]**  
 범조타운 1층(범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영저축은행

**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오자이 국제결혼** 과 함께하는 현실은 더 아름답습니다.  
**본사만의 장점**  
 1. 본사만의 전문 상담사  
 2. 본사만의 전문 상담사  
 3. 본사만의 전문 상담사  
**800만원대 가솔-차-가솔**  
**실속경제비용**  
 062) 232-8966  
 010-5256-8966

**인테리어 목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알레오** 실익확실 **따뜻난방이 책임집니다.**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TEL: 062)262-0101